

# 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 주요 내용

## 1. 추진 배경

- 한파 재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('25.11.15.~'26.3.15.) 운영, 우리부는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추진

- ❖ 이번 대책은 ①한파특보 다발지역(강원·충북·경기) 소규모 사업장(50인 미만), ②환경미화·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·직종을 집중 관리
- ③이주노동자 대상으로 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 제작·배포하고,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추진

## 2. 기후전망 및 한랭질환 산재 현황

- (기후전망) 올해 겨울은 평년 기온('91~'20년, 0.5도)과 비슷하나,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겠으며, 최근 겨울철 한파일수\*는 감소 추세

\* 아침(03~09시)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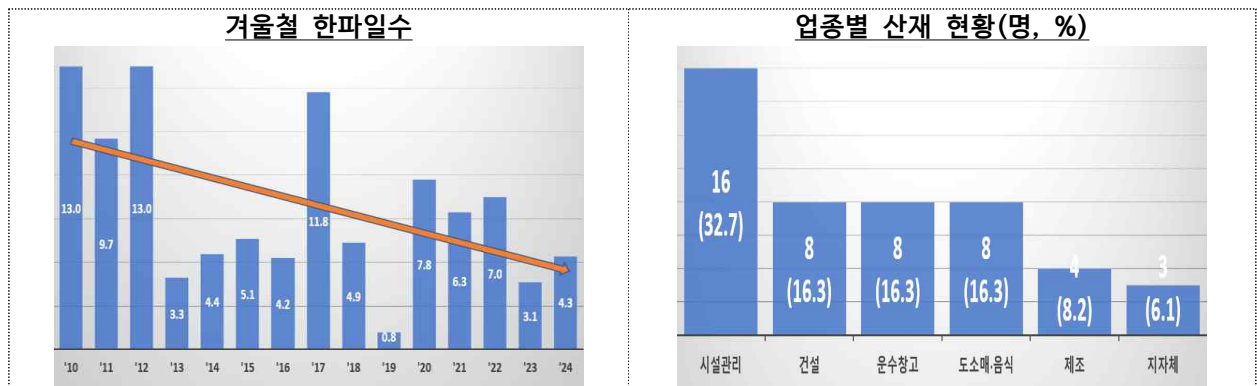
- (산업재해)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 49명\*

\* ('20~'21) 26명 → ('21~'22) 5명 → ('22~'23) 11명 → ('23~'24) 2명 → ('24~'25) 5명

- (업종별) 시설관리(건물관리·폐기물수거 16명, 32.7%), 건설(8명, 16.3%), 운수창고(배달·물류 8명, 16.3%), 도소매(수리·주유 8명, 16.3%) 순

- (규모별)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\*에서 다수 발생(34명, 69.4%)

\* ▲10인 미만 : 21명(42.9%) ▲10~30인 미만 : 9명(18.4%), ▲30~50인 미만 4명(8.1%)



### 3. 주요 추진내용

#### ①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

- (비상대응반)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,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\*을 구성·운영
  - \* (관심 단계) 비상대응반 구성 → (주의경계) 지방관서·안전공단(부서장) → (심각단계) 기관장 격상
- (한파 취약사업장) 지방관서별로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DB를 구축(3만개)
  - 중대재해싸이렌(약 9만명)으로 ①한파특보(주의보, 경보), ②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, ③한파로 인한 재해사례 전파 등 중점관리

#### ②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

- (건설노동자)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 휴게시설(쉼터) 설치, 난방기기 임대, 방한장갑·발열조끼 구매·제공하도록 적극 안내
  - \*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 고시 제도개선 완료('25.2.12.)
- (환경미화노동자)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\*(06시→09시),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 중지 하도록 집중 지도
  - \* 핫팩 및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지원(4,900세트)
- (특고·배달종사자) 배달플랫폼(쿠팡이츠, 배달의 민족 등)과 협업하여 배달종사자 활용 앱(App)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\*(133개) 정보 제공
  - \* 전국 쉼터 정보(운영시간, 연락처, 주소 등)를 네이버 지도 및 라이더 배달수행 앱에 탑재
- (이주노동자) 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을 모국어(18개 언어)로 제작, 농·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

#### ③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·점검

- (사전점검)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·이행하도록 안내공문 송부
- (집중점검·감독) 지방정부와 농·축산업종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('25.12월~'26.2월)